

민주,尹 거부권·김진표 직권에 ‘본회의 직회부’ 카드 무력화

“양곡법 포기 안해…후속 입법으로 정상화” “간호법, 정부가 갈등 조장…손놓으란 거냐” 당 일각 “성과 내야…독주 프레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꺼내든 ‘본회의 직회부’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에 무력화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공이 돌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기본적으로 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됐지만 추가 입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과정,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김 의장의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 안건

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 의장은 안건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된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정을 복기해보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토론 양보로 본회의 통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정부 여당은 어쩔나. 김 의장의 두 차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은 보란 듯이 재의결에 반대하며 민심이 맞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 여당이 갈등 조장 대신 또다시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놓고 있으란 말이냐”고 했다.



반면 김 의장은 “직상정(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지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 프레임 부담에도 꺼내든 본회의 직회부 카드

가 무력화되며 난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본회의 직회부 등 단독으로 입법을 하면 독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서동욱 전남도지사, “베트남, 우리와 상호 간 경제 협력 강화되길”

베트남 빈프역성 당서기장과의 간담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4일 영암에 위치한 호텔현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빈프역성의 응우옌 만 끄영 당서기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의회의 베트남 의원선선협의회 대표 정길수 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빈프역성 부성장, 당 상임위원, 인민회의

부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립국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홍보영상 상영, 환영사,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인사말에서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많이 닮아있는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특별하다”며 “그간 교류의 역사와 더불어 특히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두 나라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음식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4월 농업중앙회가 베트남 사무소를 개설했다”며 “전라남도의 주요 생산물인 고품유자 등을 홍보해 전세계적 K푸드 열풍에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남 도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베트남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상호 간 경제적 협력이 상호 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빈프역성과 전라남도 간 우의가 더욱 두터워지고, 협력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담양군의회 최현동의원에게 듣는다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 스물아홉 쉰대의 신발이 닳도록 주민들을 만난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10개월째의 초선 의정활동을 맞아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조이면서 주민들을 향해 건넨 말이다.

최현동 의원은 “지역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할 때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서 후보 시절 “매일 6시면 일어나 지역의 축산 및 임업에 농가들과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매주 일요일이면 담양 우시장을 방문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일을 지금까지도 이어오며 현장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아침 인사와 함께 민원 청취와 문

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현장 의정활동을 강조하고, 주민들로부터 ‘당선되고 의원 배지만 달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지역민들의 말을 되뇌이던 최의원은 “9대 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살피고 있다”면서 “저 역시도 등원 후 60킬레 정도의 신발이 닳도록 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임기 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최의원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적절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군의원으로서 군민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영원한 의원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지역 발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담양지구 자원위원,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민생안전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